

# 북미 2차 정상회담은 '트럼프 별장'?

블룸버그 통신 "트럼프, '마라라고 카드' 만지작 ... 김정은, 핵포기 시간표 원할수도"

'2차 북미정상회담은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회담 개최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를 2차 회담 장소로 제안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라라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으로, '겨울 백악관'으로도 불려온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후속 회담을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하라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이 '죽이 맞는다'면 2차 정상회담은 아마도 가을에 열릴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번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무기 포기에 대한 시간표를 약속하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회담장 밖으로 걸어 나올 각오가 돼 있으며, 북한에 어떠한 양보도 제공하지 않 것 조 언받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고위급 부담의 이번 회담은 이틀간 이어질 수도 있고 불과 몇 분 만에 끝날 수도 있다"며 "회담이 잘 굴러간다면 12일 당일 추가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13일에도 추가 일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7일 오전 싱가포르 하버프린트에서 관광객들이 도보로 센토사 섬에 들어가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상그릴라 호텔 주변 탕린 지역과 센토사 섬 전역 및 센토사 섬과 본토를 잇는 다리와 주변 구역을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내다냈다.

백악관은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서 6월 12일 현지시간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첫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백악관 관계자도 비핵화 관련 후속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켈러이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

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에 "한번의 회담, 한 번의 대화보다 더 있을 수 있다"며 "핵 협상에는 2번, 3번, 4번, 5번의 회담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 등이 보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방미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친서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갈망을 표현했다고 블

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한글로 된 이 친서는 김 위원장이 친필로 쓴 것이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도 가져왔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을 위한 선물을 건네며 화답했으나, 백악관은 서로 주고받은 선물이 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 한국, 대륙철도 길 열렸다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 ... 개별협정 없이 운송 가능

우리나라가 7일 북한, 러시아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Organization of Railway)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체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28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OSJD는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 사이 국제철도협약을 맺기 위해 1956년 결성된 기구로, 대륙철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철도 운송과 관련한 제도와 운송협정을 마련하고 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OSJD 정회원으로 가입함

에 따라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포함해 28만km에 달하는 국제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 기구에 가입하면 철도 노선이 지나는 회원국과 개별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운송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매년 OSJD 가입을 추진했으나 다른 정회원인 북한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

# 수목비엔날레 붐업 ... 전남도청사에 갤러리 오픈

전남도가 청사 로비 일부를 아름다운 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전남도는 7일 청사 로비에서 '전남도청 갤러리' 개관식을 하고 첫 기획전으로 '수목의 공간'을 선보였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9-10월 두달간 목포·진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회 국제수목비엔날레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전시다. '전남도청 갤러리'는 청사 로비에 약 52㎡(16평) 규모로 설치됐다. 청사 방문객에게는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 미술인과 대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줌으로써 미술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됐다. 전남도는 개관을 기념해 오는 29일까지 전통수목화의 이해와 현대 수목화의 경향을 보여주는 '수목의 공간' 기획전시를 한다. 기획전에서는 국보급 작품 이미지 24점과 수목화 도구를 선보인다. 허달용, 정경화, 이인남, 이재영 등 현대 작가 4명의 작품 6점도 전시된다. 전통수목의 정신을 살린 각기 다른 4명의

현대 작가의 작품은 현대수목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시대적 여건과 무관하지 않게 발달한 조선미술사를 작품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선말기 문인화풍을 이끈 소치 허련이 남도지역을 기반으로 남종화를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수목비엔날레를 개최하게 된 당위성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예향 남도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해준다. 전남도는 앞으로 '한국 수목화 기획전'을 한 번 더 개최한 후 공모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을 선정해 전시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전시가 오는 9-10월 목포와 진도에서 개최되는 제1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미술을 사랑하는 분들과 도민 모두가 국제수목비엔날레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남한 교수들, 평양서 강의할 날 기대"

전유택 평양과기대 총장 전남대 방문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전유택(사진) 총장이 "앞으로 남북과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남한 교수들도 평양과기대에서 학생들을 교육해 대학 설립의 취지를 살렸으면 한다"고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은 미국 국적자다. 전 총장은 "역류된 3명의 미국인 중 2명이 평양과기대 교수 등 대학 관련자였는데, 역류된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며 "그러나 그분들이 풀려났고 남북정상회담이 잘 끝났고 북미정상회담도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전 총장은 7일 오후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남대·평양과학기술대 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북한의 최초 사립대학인 평양과기대의 총장을 지난해 3월부터 맡고 있는 전 총장은 북한의 미국인 역류사태도 같은 해 9월부터 미국 국적자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소속 대학에 가지 못하고 있다. 전 총장

이날 소속 교수 3명과 함께 방문한 전 총장은 전남대 정병석 총장과 공동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사업 등을 펴기로 했다.

전남대는 거점 국립대 중 유일하게 북한 농업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북한 농업에 대한 협력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 전남대를 방문한 전 총장과 농생명, 치의학, 공학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이번 협약이 성사됐다.

정병석 총장은 "남북한이 함께 발전하는 데는 우선 사람·교육의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한이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해서 과학기술 교류까지 한다면 남북한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10년 10월 개교한 평양과기대는 남한의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과 북한 교육성이 공동으로 세운 북한 내 유일한 사립대학으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 파견된 교수들이 영어로 가르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전남도 미세먼지대책위 출범

전남도가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두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나섰다.

전남도는 7일 동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전라남도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미세먼지대책위는 교수, 환경단체 등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는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전남도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 및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으로 진행됐다. 초대 위원장에는 서성규 전남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혈당조절

###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혈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꺽술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꺽술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한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심의회번호 : 2179239

NAVER 유한바이오 백세생활건강 검색

### 010-3598-7080

##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비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8억 ◆ (조정가)

###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 급 식당 임대

- 서구 쌍촌동 965-12번지 1층
- 약20평 보증금 1천만 월 90만
- 시설 : 에어컨, TV, 주방시설 완비 냉장고 기타비품 풀 완비 (약 4천만원 상당)
- 급 : 1천2백만에 양도
- 부동산 환영

### 감정가 40%이하 급 모델

- 전남지방 방 15개
- 감정 5억6천 급 매매가
- 3억5천 담보제공가능

### 감정가 30%이하 급 모델

- 광주 북구 방 30개
- 감정 11억 급 매매가 7억8천
- 현 법인소유 이전비 없음

### 문의 010-7527-7400